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 연구
- 여대생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홍 서 우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 연구

- 여대생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홍 서 우

인 준 서

홍서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진로인식 등 진로상태를 나타낸 자료가 타 전공에 비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1~4학년 학생들의 학년,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 및 상태를 이해하고,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로성숙도란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자신과 진로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준비 및 계획, 선택, 실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연령층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준다. 진로성숙도는 학생들 현재의 상태를 밝혀내는 진단적 성격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발달, 성숙 정도에 따라 안내할 수 있는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진로성숙도검사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능력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어느 영역에 지도와 조언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성신여자대학 내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1~4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성숙도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태도 검사(47문항)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독립성, 준비성, 목적성, 확신성, 결정성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수치상으로 독립성과 준비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목적성, 확신성, 결정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조소는 진로성숙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부분에서 동양화, 서양화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준비성과 독립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은 목적성과 준비성을 제외하고 모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관계이고, 목적성과 준비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증감하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첫째,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년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미술대학 학과 내에서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진 이 시점에 학생들의 진로수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진로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대학생 진로교육의 개념	5
2. 대학생의 진로발달	8
1) 긴즈버그의 이론	9
2) 수퍼의 이론	11
3) 긴즈버그와 수퍼의 대학생 진로발달단계	13
3. 미술대학 학생들의 진로	15
1) 미술전공 관련 진로	15
2) 미술전공 관련 진로의 전망	16
3) 순수예술전공의 진로	22
III. 연구 및 분석방법	27
1. 진로성숙도	28
1) 진로성숙의 의미	28
2) 진로성숙 측정도구	30
3) 진로성숙 측정도구의 선정	35
2. 연구방법	37

1) 연구대상	37
2) 연구절차	38
3) 연구도구	38
4) 자료분석방법	41
IV. 연구결과	43
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43
2.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44
3.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53
4.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상관관계	62
V. 종합분석 및 논의	65
VI. 결론 및 제언	70
1. 결론	70
2. 제언	7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Ⅱ-1> 학자별 진로교육의 정의	6
<표Ⅱ-2> 긴즈버그의 진로발달단계	10
<표Ⅱ-3> 대학생 진로발달단계	13
<표Ⅱ-4> 미술전공 관련 진로 종류	15
<표Ⅱ-5> 순수예술전공 관련 진로	22
<표Ⅲ-1> 진로성숙 측정도구의 요약	34
<표Ⅲ-2> 진로성숙태도 검사 사용한 선행연구	36
<표Ⅲ-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7
<표Ⅲ-4> 연구절차	38
<표Ⅲ-5> 설문지 구성내용	39
<표Ⅲ-6> 진로성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41
<표Ⅳ-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기술적 통계	43
<표Ⅳ-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45
<표Ⅳ-3>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	46
<표Ⅳ-4>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	47
<표Ⅳ-5> 학년에 따른 확신성 차이	49
<표Ⅳ-6> 학년에 따른 준비성 차이	50
<표Ⅳ-7>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	52
<표Ⅳ-8>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53
<표Ⅳ-9> 전공에 따른 결정성 차이	55
<표Ⅳ-10> 전공에 따른 목적성 차이	56

<표IV-11> 전공에 따른 확신성 차이	58
<표IV-12> 전공에 따른 준비성 차이	59
<표IV-13> 전공에 따른 독립성 차이	61
<표IV-1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62

그림 목 차

<그림 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통계그래프	44
<그림 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그래프	45
<그림 3>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 그래프	47
<그림 4>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 그래프	47
<그림 5> 학년에 따른 확신성 차이 그래프	49
<그림 6> 학년에 따른 준비성 차이 그래프	51
<그림 7>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 그래프	52
<그림 8>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그래프	54
<그림 9> 전공에 따른 결정성 차이 그래프	55
<그림 10> 전공에 따른 목적성 차이 그래프	57
<그림 11> 전공에 따른 확신성 차이 그래프	58
<그림 12> 전공에 따른 준비성 차이 그래프	60
<그림 13> 전공에 따른 독립성 차이 그래프	61
<그림 1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63

I. 서 론

현대의 사회는 첨단산업기술과 IT기술의 보편화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직업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직업의 구조는 기존 직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분화되었다.

인력개발연구소에서 1969년 최초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은 3,26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본직업명 5,385개, 관련직업명 3,913개, 유사직업명 2,357개로 총 11,655개를 수록하고 있다. 유사직업명을 제외해도 9,298개, 약 3배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¹⁾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한국직업사전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매년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지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이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에 비추어볼 때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사회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 선택은 삶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며,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졸업 후의 취업 및 진로와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진로교육이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제정한 진로교육법에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법조항이 추가되었고, ‘전국대학 진로취업 포럼’이 개최되는 등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 한국직업사전, 서울:한국고용정보원, p.vii.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진로와 취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자체에서 운영하는 종합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취업지원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이 있다. 진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취업특강,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등으로 진행되고, 학교별로 책임지도교수제, 진로관련 교양과목 개설 등 대학생 취업·진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음에도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어 진로방향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대학 내의 진로 교육이 대체로 진로 상담이나 단기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진로교육 참여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학년과 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체능 계열 중 미술과 관련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은 2011년 468개에서 2012년에 534개로 1년 사이에 16.6%가 증가하였다.²⁾ 미술 관련 진로세계는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술전공 학생들은 순수예술의 특성상 특별한 재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받아 왔고, 대학교육 또한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공에 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경험에 비해 직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미술과 관련된 진로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고, 미술과 진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2)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3 직종별 직업사전, 서울:한국고용정보원, p.22.

대학 내에서 미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와 연구는 타 전공에 비해 많지 않다. 따라서 미술대학의 특화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수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의 진로수준에 대한 자료는 진로성숙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과업 수행정도로 학생들의 진로인식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조사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현 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며, 앞으로의 진로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성숙 상태를 파악하여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둘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성신여자 대학교의 미술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구 결과를 다른 대학 집단에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미술대학 내 동양화, 서양화, 조소 전공으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미술대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나타내지 않는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지만을 근거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

넷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과 개인·가족, 사회·환경적 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진로교육의 개념

진로란 영어로 'career' 이며,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는 뜻의 라틴어 'carro' 에서 유래하였다. 사전적으로는 '한 개인 생애의 전 과정'으로 정의된다.³⁾ 즉, 진로는 직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의 경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은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직업이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직업교육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진로교육의 핵심은 '직업'이었으며, 취직과 관련된 직업선택과 준비, 취직 이후의 적응생활 등과 관련된 과정이었다.⁴⁾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동안 일을 했으며, 원활한 일의 수행을 위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집단생활을 배워야 했다.

진로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미국 학자들이 정의한 진로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베일리(Bailey)와 스타트(Stadt)는 진로교육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진로의 방향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와 함께 선택한 진로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험이라 보았다.⁵⁾ 호이드(Hoyt)는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대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발달 수준

3) 박선영 외3(2014), 진로상담과 직업, 경기:정민사, p.11.

4) 김충기(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진로교육학회, p.166.

5) Bailey, Larry J, & Stadt. (1973). *Ronald, Career Education: New Approch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II.:* Mcnight Publishing Co, p.347.

에 적합하게 지도하는 포괄적인 교수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을 정의하고 있다.⁶⁾ 즉, 진로교육이란 개인의 진로선택과 준비,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적 경험으로 직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로교육이 도입된 것은 1982년 교육부 장관이 문교시책을 발표하면서 ‘진로지도교육’에 대한 강좌를 제시한 이후부터이다.⁷⁾ 1980년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늘어났고, 이를 계기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

진로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직업관이 달라지면서 진로교육의 개념도 변화해 가고 있다. 변화하는 진로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중요시 되었던 교육의 목표와 현 시대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자별 진로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Ⅱ-1)

<표Ⅱ-1> 학자별 진로교육의 정의

학자	내용
김충기(1986)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인간교육. 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

6) Hoyt 외2. (1974). 산업사회와 진로교육, 김충기 역(1992). 서울:교육과학사, p.12.

7) 이현립 외3(2000), 진로지도와 상담, 경북:영남대학교 출판부, p.84.

	<p>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⁹⁾</p>
이현주(2001)	<p>전 생애의 발달단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진로 설계를 뜻하는 동시에 특정 진로발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뜻하는 직업교육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¹⁰⁾</p>
한국고용정보원 (2007)	<p>다양한 유형의 교육 전략을 활용하여 진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시도로 직업정보의 제공, 교육과정에 직업 관련 개념의 주입, 기업 및 산업 현장으로의 체험학습, 직업인에 의한 경험담 제공, 진로 관련 학습을 위한 수업의 개설, 인턴십과 도제프로그램의 개설, 직업체험관 제공 및 탐방 등을 포함.¹¹⁾</p>
정철영(2010)	<p>개인이 진로를 선택·적용·발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으로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하여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¹²⁾</p>
민춘기(2013)	<p>대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과를 통해, 안내·상담·지도하는 활동과 더불어, 진로나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¹³⁾</p>
진로교육법 제1장 제2조 (2015)	<p>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p>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직업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학생 진로교육의 주된 기능은 직업교육, 취업지도 등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평생교육이 중요시 되면서 대학생 진로교육의 기능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교육은 과거의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인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아실현의 기능이 추가되어 종합적인 인간교육의 관점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찾고,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자아실현을 하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대학생의 진로발달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생들은 다양한 탐색과정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개발과 준비과정을 거쳐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4) 즉, 대학생 시기는 자기개발을 통해 폭넓은 경험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8)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배영사, p.8.

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p.2505.

10) 이현주(2001),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 : 대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pp.219-247.

11) 한국고용정보원(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개정연구, 서울:한국고용정보원, p.8.

12) 정철영(2010), 진로교육의 이해, 교육연구정보. 통권 제58호(2010.10),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p.13.

13) 민춘기(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운영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3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p.34.

14) 임경희 외11(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학지사, p.15.

대학생 시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진로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진로발달 정도를 점검·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발달이론의 특징은 첫째, 개인의 진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개인과 일의 세계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둘째, 각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지도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진로지도에 효과적이다. 셋째, 개발된 검사 도구들과 자료들은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¹⁵⁾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긴즈버그와 수퍼의 이론을 살펴보고, 대학생이 해당되는 진로발달시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긴즈버그(Ginzberg)의 이론¹⁶⁾

긴즈버그(1951)는 진로선택에 있어 고정적이고 일회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로이론에 발달적 접근방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진로 선택이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진로 선택 과정은 비가역적이라고 보았다. 진로 선택은 현실적 요인, 교육의 종류와 정도, 정서적 요인 및 개인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선택 과정의 해결은 언제나 타협으로 끝난다고 주장하였다.

타협을 선택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본 긴즈버그는 진로선택을 사춘기 전부터 20세 초반까지 대략 10년간 걸쳐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보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표Ⅱ-2)

15) 강재태(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p.33-34.

16) 이현림(2007), 진로상담, 서울: 양서원, pp.109-112. 요약정리.

<표 II -2> 긴즈버그의 진로발달단계 17)

시기	연령	특성
환상기 (fantasy)	아동기 (11세이전)	초기단계에서 놀이중심 이 단계 후반에서 놀이가 일 지향이 됨.
잠정기 (tentative)	청소년 초기 (11세-17세)	직업요구 수준 즉 관심, 능력, 작업보상, 가치관 그리고 시간전망에 대한 점진적 인식 으로 특징되는 과도기적 과정
현실기 (realistic)	청소년 중기 (17세-성인초기)	능력과 관심의 통합, 가치관의 발달, 직업선택의 명료화, 직업유형이 정형화

첫째, 환상기(6-11세)는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로 현실여건,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가 자의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놀이 활동을 통해서 선택한 직업에서 하는 일을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잠정기(11-17세)는 환상기와 달리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는 시기로 청소년 초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네 개의 하위 단계로 구분된다.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흥미기(11-12세),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인식하는 능력기(13-14세), 자신이 선호하고 능력에 부합하는 직업을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는 가치기(15-16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전환기(17-18)로 이루어진다.

셋째, 현실기(17-성인기)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개인적 요인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환경적 제약 등의 현실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하여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소년 중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세 개의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자신의 진로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 김충기 외5(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동문사, p.254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탐색기,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정교화기, 자신이 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구체화기로 이루어진다.

긴즈버그가 제시한 발달 단계는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진로 선택 과정에서 규범적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직면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

2) 수퍼(Super)의 이론¹⁸⁾

수퍼(1953)는 긴즈버그(1951)의 진로발달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로 선택 및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분석,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이론을 구축하였다. 그는 진로발달이란 인간의 생애 중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된다고 보았다.

첫째, 성장기(출생-14세)는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개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 동일시한다. 이 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노력기의 세 가지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환상기(4-10세)는 개인의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 수행이 중시되며, 흥미기(11-12세)는 개인의 흥미가 진로의 목표와 내용 결정이 중시된다. 능력기(13-14세)는 진로선택에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훈련의 요구조건을 중시한다.

둘째, 탐색기(15-24세)는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며,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시행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한다. 이 단계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세 가지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잠정기(15-17세)는 자신의 욕구, 흥미,

18) 김충기(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진로교육학회, pp.48-50. 요약정리.

능력, 가치,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고, 환상 속에서나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진로를 시행해본다. 전환기(18-21세)는 자신의 진로성취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며 자아개념을 확립한다. 시행기(22-24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셋째, 확립기(25-44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시기로 시행기와 안정기의 두 하위 단계로 구분된다. 시행기(25-30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차례 변화를 시도한다. 안정기(31-44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안정과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갖게 되면서 진로유형이 안정된다.

넷째, 유지기(45-66세)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장 안정된 생활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하위 단계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쇠퇴기(65세 이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지고, 직업전선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로 감속기와 은퇴기로 구분된다. 은퇴기(65-70세)는 일의 수행속도와 능력이 느려지고 쇠퇴함에 따라 직무에 변화가 요구되고, 이 시기의 사람들은 시간제 일을 찾는다. 은퇴기(71세 이후)는 시간제 일과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으로 이직하게 된다.

수퍼와 그의 동료들은 위의 진로발달단계 가운데 탐색기와 확립기에 주목했다. 두 시기는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하고 선택하여 그 직업에서 안정과 성취,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퍼는 진로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차, 능력, 노력, 환경, 문화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선택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3) 대학생 진로발달단계의 특징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직업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될 대학생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긴즈버그와 수퍼의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연령단계에 맞추어 진로발달과정을 규명한 긴즈버그와 수퍼의 이론에서 대학생이 해당하는 진로발달 시기를 살펴보면, 긴즈버그는 현실기, 수퍼는 탐색기에 해당된다.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 -3> 대학생 진로발달단계¹⁹⁾

학자	긴즈버그(1951)		수퍼(1953)	
시기	현실기(17-성인기)		탐색기(15-24세)	
하위 단계	탐색기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	잠정기	흥미, 욕구, 능력, 가치, 취업기회 등 고려하여 진로 선택, 경험, 시행
	구체화기	직업목표 결정,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	전환기	현실적인 요인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 활동
	특수화기	자신이 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 보다 세밀한 계획	시행기	직업의 적합성 여부 시험

긴즈버그에 따르면,²⁰⁾ 대학생은 현실기인 17-성인기에 해당된다. 현실기는

19) 이현림(2007), 전계서, pp.109-112.
김충기(1999), 전계서, pp. 48-50. 요약정리.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은 포함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 대학생들은 탐색기에서 취업기회를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구체화기에서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타협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수화기에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한다. 이처럼 현실기(17-성인기)의 대학생들은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사회에 입문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탐색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가치의 타협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찾는 과정이다.

수퍼에 따르면²¹⁾, 대학생은 탐색기인 15-24세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직업을 결정하여 직업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하위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전환기(18-21세)에 속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전환기를 조금 일찍 경험할 수도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첫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바를 구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시행기(22-24세)는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학의 진로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학교 선배, 멘토 등을 만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직하는 곳에 대한 결정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20) 이현림(2007), 전계서, pp.109-112.

21) 김충기(1999), 전계서, pp.48-5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은 진로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선 단계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발달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미술대학 학생의 진로

1) 미술전공 관련 진로

2015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대학전공별 진로 가이드-미술학 편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크게 주요직업과 융합직업으로 나누어 총 88개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직업 49개, 융합직업 39개, 세부적으로 전문작가 18개, 조사·연구 17개, 문화예술경영 18개, 디자이너 32개, 교육 3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Ⅱ-4)

<표Ⅱ-4> 미술전공 관련 진로 종류²²⁾

분야	직업명칭
전문작가	현대미술가, 서양화가, 판화가, 도예가, 조각가, 동양화가, 서예가, 포크미술가, 벽화아티스트, 북아트, 미술가, 일러스트레이터, 개념예술가, 행위예술가, 미디어아트미술가, 영상미술가, 사진미술가, 설치미술가, 공예가
조사·연구	문화보존가, 미술품감정사, 문화예술정책평가연구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미술품경매사, 아트 딜러, 큐레이터, 독립큐레이터, 학예사, 미술잡지에디터, 미술전문사이트에디터, 미술서적출판기획자, 미술품번역가, 문화예술기자, 지적장애 미술지도사, 미술심

22) 임상빈 외5(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미술학, 서울:한국고용정보원, pp.24-31.

	리치료사
문화예술경영	아트컨설턴트, 미술전시 안내인(도슨트), 화랑운영자, 미술프로그램기획자, 작가 레지던스 기획자, 미술프로젝트기획자,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자, 미술관운영사무원, 아트디렉터, 전자승용건축제도사, 조명기사, 공연마케터, 공연기획자, 광고감독, 영화미술감독, 아트토이디렉터, 뷰티아트디렉터, 광고아트디렉터
디자이너	아트 스토리텔러, 방송소품제작자, 바디페인팅아티스트, 도색작업가, 컬러리스트, 게임 컨셉 아티스트, 플로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스타일리스트), 비주얼머천다이어(VMD), 패션컬러리스트, 색조화장품개발연구원, 특수 분장작가, 조명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전시디자이너, 마케킹디자이너, 토이디자이너
교육	미술교사, 미술실기 작품집코치, 미술 전공교수

2) 미술전공 관련 진로의 전망²³⁾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2015한국직업전망에서는 10년 후의 직업세계 트렌드를 예측하고 196개 국내 주요 직업의 일자리 증감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직업 분야는 크게 경영·회계·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교육 및 연구관련직, 법률·경찰·소방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관련직, 문화예술관련직,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운전 및 운송관련직, 영업 및 판매관련직, 경비·청소 및 개인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재료·화학관련직, 전기전자·정보통신관련직, 음식서비스 및 식품가공관련직, 섬유·환경 및 공예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 등 17개로 분류하여 각 직업에 대한

2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한국직업전망, 서울:진한엠앤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록된 내용 중 미술전공과 관련된 직업분야는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문화예술관련직,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섬유·환경 및 공예 관련직으로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연구관련직²⁴⁾

미술대학교수와 중등학교 미술교사를 포함하는 교육 관련직의 인력은 향후 10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관련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요인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와 같은 교육부의 교육정책 변화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만6세-만21세)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수 대비 교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학생 감소에 대비하여 교원 인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전공 학문과 관련하여 강의하고 연구하는 직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2013)를 살펴보면 2013년이 2008년에 비하여 18.6% 증가하였다. 평생교육 확대에 따라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고 대학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된 교수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트랙교수나 강의전담교수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 교수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수가 임용이 된 후에도 연구실적과 재임용 등 교수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상계서, pp.144-183.

중등학교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직업으로 교육통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교원 수는 2008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등학교교사의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 수는 과거 200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로 교원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채용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중등교사로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원강사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문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는 직업으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이 2009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공교육기관들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원강사의 고용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적인 실기능력을 필요로 하는 미술을 포함한 예능계열의 학원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문화예술관련직²⁵⁾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도 순수 예술과 응용 예술간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예술 시장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화가 및 조각가 등 순수예술 직종의 고용과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화가와 애니메이터의 고용은 밝은 편이다.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 관리·연구

2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상계서, pp.316-357.

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전시개막식 및 리셉션 준비 등 전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큐레이터가 근무할 수 있는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큐레이터의 경우 국립 미술관을 제외한 시립미술관 및 박물관들이 영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명의 소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큐레이터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가는 그림,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화랑이나 미술관 등에 전시하는 화가, 조각가, 서예가, 설치미술가 등을 말한다. 미술가는 대부분 시간적 제약이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유롭다. 아트페어, 비엔날레, 미술전시회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미술전시도 확장되고 있어 미술가의 일 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운영난을 겪고 있고, 후원 또한 많지 않아 유명한 미술가를 제외하고는 작품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술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가는 분야에 따라 촬영대상과 방법을 선택하여 사진을 촬영·편집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직업으로 사진 찍는 목적에 따라 인상사진가, 생태사진가, 광고사진가, 순수사진가 등으로 나뉜다. 국내 사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물사진 분야이다. 인물사진에는 웨딩, 아기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이 있는데, 최근 출산율 저하, 미혼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하여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도 쉽게 사진을 찍고 편집할 수 있어 전문가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는 이야기의 주제, 등장인물, 상황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물의 동작과 색상을 결정하여 만화나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직업이다. 만화가와 애니메이터는 관련 회사에 고용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다.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여가문화의 스토리를 제공하는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한 출판시장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발전에 따라 인쇄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만화를 웹툰, 만화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활성화 되고 있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²⁶⁾

현대의 소비자들이 디자인과 비주얼적인 면을 중시함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중시하는 제품 개발, 광고 및 마케팅 분야 등 디자인 관련 직업들의 고용 전망은 긍정적이다. 제품의 기능과 가격 외에 디자인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고, 가전제품, 가구, 주방, 컴퓨터 기기 등 다양한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미디어디자이너 등으로 나뉜다. 제품디자이너는 전자제품, 가구, 문구류, 완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디자인 한다. 소비자는 디자인이 외형적으로 직접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품디자인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

2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상계서, pp.376-395.

며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외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제품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생산의 일부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면서 제품디자이너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옷을 디자인하는 직업으로 악세서리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보석디자이너 등이 속한다. 패션업계는 전반적으로 차별화가 중시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신인 디자이너들의 진출이 쉬어지고 있으며, 매년 무수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의류업계는 과거 20여 년간 성장기에 있었으나 이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경쟁은 향후에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디자이너는 실내공간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디자인하고 장식하는 직업으로 디스플레이디자이너,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 등이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실내공간을 장식하고 디자인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장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구조가 변화하여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디자인업은 건설경기에는 큰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주택 경기의 침체 장기화 등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한 일자리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각디자이너는 이미지나 심벌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으로 광고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서체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등이 속한다.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해 졌지만, 대부분의 시각디자인 전문업체의 근무환경과 임금은 다소 열악하다. 그러나 시각디자인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 전문적인 자질

을 갖춘 시각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웹 및 멀티미디어디자이너는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그림이나 자막을 디자인하는 직업으로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디자이너 등이 속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에 전체 인구의 9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마트폰 등의 IT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 웹의 디자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게임 유저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게임 산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에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한다면 계속해서 웹 및 미디어디자이너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순수예술전공의 진로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미술학 편에서 소개하는 미술관련 직업 88개중에서 순수 예술 전공인 동양화, 서양화, 조소 전공 관련 분야는 총 47개이다. 구체적으로 서양화 전공 41개, 동양화 전공 21개, 조소 전공 23개로 관련된 직업은 다음과 같다. (표Ⅱ-5)

<표Ⅱ-5> 순수예술전공 관련 진로²⁷⁾

분야	직업 명칭	직무 개요	세부 전공 요건
전문작가	현대미술가	기존 재료로부터 현대적인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미술작품을 창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서양화가	유화, 아크릴 등 서양권에서 시작된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추상화 등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창작함	서양화과
	판화가	전문적인 판화기법을 이용해 복수 에디션이 가능한 판화로 미술작품을 창작함	서양화과

전문 작가	조각가	목재, 석재, 진흙, 금속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조각 미술작품을 창작함	조소과
	동양화가	먹물, 아교 등 동양화권에서 시작된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산수화, 인물화 등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창작함	동양화과
	서예가	먹과 붓을 이용하여 화선지에 시나 시조 등을 쓰거나 사군자 등을 그림	동양화과
	포크미술가	전통적인 사료, 재료, 기법을 활용하여 민속 그림을 전문으로 제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동양화과
	벽화 아티스트	그림의 바탕재가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벽을 이용해 미술작품을 제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동양화과
	북아트 미술가	전문적인 북아트 기술을 이용, 책의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함	서양화과
	일러스트 레이터	다양한 조형언어를 활용하여 문학, 광고 영상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를 위한 그림이나 문양을 창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동양화과
	개념예술가	아름다운 사물을 만들기보다 개념 자체와 작가의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예술작품을 창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행위예술가	자신의 몸과 오브제를 이용하여 특정 장소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실시간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함	서양화과, 조소과
	미디어아트 미술가	전문적인 미디어 기술을 이용,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주로 서양화과)
	영상미술가	전문적인 촬영기술을 이용, 영상 촬영, 편집을 통해 예술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함	서양화과
설치미술가	전문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오브제 등의 여러 장치를 활용, 특정 공간을 의도에 맞게 예술작품으로 창작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조사 ·연구	문화예술정책 평가연구원	기관이나 기업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함	서양화과, 조소과
	미술평론가	예술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에 위한 평론을 작성함	서양화과
	미술품경매사	미술품 등 여러 실물을 취급하는 경매회사에서 경매를 진행함	서양화과
	아트딜러	작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작품만을 판매, 중개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	서양화과
	큐레이터	미술관, 갤러리 등의 전시장소에서 전시를 기획하여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소개, 전시를 홍보, 관리함	서양화과
	독립큐레이터	독립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큐레이터로, 기획전 마련에서부터 예산집행, 작가선정 등 전시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진행함	서양화과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 관리를 담당함	서양화과
	미술잡지 에디터	미술 저널리즘(신문 잡지)의 편집자로 원고와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의 손상이 없도록 교정, 교열, 윤문 작업을 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미술전문 사이트 에디터	미술 저널리즘 중에서도 미술전문사이트(ex) 김달진연구소, 네오룩)의 에디터로써 미술관련기사와 전시회, 학회, 작가정보 등의 자료를 관리함	서양화과, 조소과, 동양화과
	미술서적출판 기획자	다양한 미술 도서분야를 기획, 출판하고 홍보, 유통시킴	순수미술학과 전공자 가능
아트컨설턴트	고객에게 미술작품의 선정, 매매, 설치, 관리, 투자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기업과 정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용역을 받음	서양화과	

문화 예술 경영	미술전시 안내인(도슨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자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등 감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화랑운영자	미술품을 전시하는 비영리 혹은 영리 갤러리를 운영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미술프로그램 기획자	학교 외의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미술 프로그램, 세미나를 기획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작가 레지던스 기획자	국공립, 민간 기업에 종사하며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 해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함	서양화과
	미술프로젝트 기획자	미술관이나 갤러리 혹은 민간 기업에서 미술 전시나 세미나, 교육을 기획함	서양화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자	대중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공간 및 교육을 지원함	서양화과
	미술관운영 사무원	현대미술, 전통미술 등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 관리, 교육, 감독함	서양화과
	아트디렉터	광고, 홍보, 그래픽 디자인 등에서 주로 시각적인 표현 수단을 계획하고 총괄, 감독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조명기사	조명감독의 지시 하에 필요한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계획함	조소과
	아트토이 디렉터	토이(toy)에 그림을 그려 토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기획, 감독, 전시, 관리함	조소과
디자인 이너	아트 스토리텔러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림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미해 재미있게 설명하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서양화과
	방송소품 제작자	방송, 영화, CF 등에 필요한 제반 소품을 기획, 준비, 제작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주로 조소과)

	바디페인팅 아티스트	메이크업 혹은 다양한 미적 경험을 위한 목적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주로 서양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도색작업가	자동차나 피규어 등의 다양한 제품에 연출의도에 맞게 색을 입힘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컬러리스트	각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색채를 소재별로 표준화하고, 조절하여 적용하는 일을 담당함	서양화과
	마네킹 디자이너	다양한 활용목적에 따라 마네킹의 컨셉을 잡고 디자인함	조소과
	토이디자이너	장난감이나 피규어의 컨셉을 잡고 디자인함	조소과
교육	미술교사	미술 교육 기관에서 종목별 미술 실기와 이론을 다양한 학습목표에 맞추어 지도함	서양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미술실기 작품집코치	학생의 대학입시나 유학을 위해 필요한 실기 작품집(포트폴리오) 준비를 코치함	세부 전공 국한되지 않음
	미술 전공교수	대학에서 예술의 학문적·독창적 가치를 연구·창조하고 예술분야의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미술계열의 이론과 실기를 강의함	각 세부 학과별 전공자

순수예술전공 관련 진로는 50%가 서양화 전공과 관련이 있었고, 조소 전공과 동양화 전공은 각각 서양화 전공 관련 직업의 절반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서양화 전공은 전문작가, 조사·연구, 문화예술경영, 디자이너, 교육 등 단일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동양화 전공은 주로 전문작가 분야, 조소 전공은 전문작가, 디자이너 분야와 관련이 있다.

27) 임상빈 외5(2015), 상계서, 서울:한국고용정보원, pp.24-31.

Ⅲ. 연구 및 분석방법

대학생의 진로성숙을 비롯한 진로관련 조사는 학생들의 진로인식상태를 파악하고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적이고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타 전공영역에 비해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수준을 나타낸 자료가 현저히 적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기보고식 검사법으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검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외국의 검사도구인 CDI, CMI,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성숙검사, 진로태도성숙검사 등이 있다. 진로성숙도검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학생들 현재의 상태를 밝혀내는 진단적 성격을 강조한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발달, 성숙 정도에 따라 안내할 수 있는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진로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종합 검사라 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진로성숙도검사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능력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어느 영역에 지도와 조언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좋은 검사도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신뢰도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한다. 타당도는 이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재고 있는지, 객관도는 측정의 결과에 대해 일치된 평가를 하는지, 실용도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신뢰도는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28) 이현림 외3(2000), 진로지도와 상담, 경북:영남대학교 출판부, pp.166-1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측정도구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진로성숙 측정도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 대상, 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 수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신뢰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측정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검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선정된 진로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학년별·전공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의 정의

진로성숙은 수퍼(Super), 크리테스(Crites) 등 진로에 대한 발달이론이 연구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진로성숙의 정의는 국내외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진로성숙은 1955년에 발표된 수퍼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직업성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²⁹⁾ 1955년에 수퍼가 직업성숙에 대해 소개한 이후, 미국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29) 이희영(2006), 전게서, p.67.

수퍼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정의했으며, 크리테스는 수퍼의 정의를 비판하고, 진로성숙이란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타나는 진로준비의 정도로 규정하였다. 호이드는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라고 개념화하였다.³⁰⁾

국내에서는 진로성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김충기(1981)는 개인이 직업과 관련된 소질,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성숙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직업발달이며, 진로성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보았다.³¹⁾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이란 자아, 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³²⁾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는 진로성숙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다.³³⁾

이상으로 학자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진로성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선택 및 준비의 정도를 이해하고, 동일한 발달단계에 속해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0) 이현림 외3(2000), 전게서, p.151.

31) 김충기(1981), 생애교육, 서울:시공사, p.121.

32)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p.27.

33)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p.5.

2) 진로성숙의 측정도구

(1)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³⁴⁾

진로발달검사(CDI)는 수퍼(Super)가 제시한 청소년 진로성숙 모형을 기초로 수퍼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검사이다. 진로발달검사의 개발 목적은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직업 또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진로발달검사는 중학교 2학년(8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생용(School form)과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용(College and University Form)이 있다. 이 두 양식은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같다. 검사 시간은 약 65분 정도 소요되며, 진로발달검사의 1부는 진로 성향, 2부는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선호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진로계획은 학생이 미래 진로를 생각해 본 정도, 진로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진로탐색은 다양한 직업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했는지의 질을 측정한다. 의사결정은 진로문제와 관련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는 진로발달과 직업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다. 2부는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용과 쓰이는 단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4) 김충기, 장선철(2006), 진로상담, 태영출판사, pp206-208. 요약정리.

3학년, 대학생에게 적절하다.

이 검사 도구는 학생들의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개인상담시 분석적인 데이터 및 예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필요로 하는 특별영역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시행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유용하다. 셋째, 진로발달 검사 도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적성개발, 흥미검사 그리고 학력 검사 등에서 얻은 정보와 함께 사용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진로발달 경험을 계획할 때 유용하다.

(2) 진로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CMI)³⁵⁾

진로성숙검사(CMI)는 크리테스(Crites)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진로성숙 개념과 진로모형에 영향을 받았다. 검사 활용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성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로성숙검사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태도척도에는 선발척도와 상담척도 두 가지가 있다. 선발척도는 직업발견 및 진로설정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진술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담척도는 75문항으로 선발척도의 50문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75문항들은 진로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참여도는 진로선택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성향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정도, 타협성은 진로선택 시에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능력척도는 5개의 지식영역을 측정하는데,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으로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35) 김충기, 장선철(2006), 전계서, pp.208-211. 요약정리.

다. 자기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 직업적 흥미, 직업 관련 욕구 및 가치, 자아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직업정보는 특정 직업의 직무내용에 대한 개인의 지식 정도, 목표선정은 자신과 직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과 직업을 매칭시키는 능력, 계획은 진로결정을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능력, 문제해결은 진로 의사결정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장애에 대처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는 각각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태도와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함께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검사는 개인진로상담이나 집단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진로발달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 문항은 미결정과 비현실성, 즉 진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분석과 문제 발생 요인을 찾는 데 유용하다.

(3) 진로성숙도 검사³⁶⁾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임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이 중·고등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이다. 이 검사는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크리테스의 CMI 모형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하위 영역은 크리테스와 마찬가지로 태도와 능력으로 구성하였으나, 태도 영역은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으로, 능력 영역은 직업세계 이해 능력, 직업선택 능력, 의사결정 능력으로 설정한 점에서 크리테스와 구별된다.

태도 검사는 진로선택에 대한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성은 자신의 진로 방향 선택 및 직업결정을

36) 이희영(2006), 전게서, pp113-115. 요약정리.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의 정도,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선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결정성은 자신의 진로방향 및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측정한다. 능력 검사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세계의 이해는 직업의 종류, 특성, 조건, 교육수준, 직무 및 직업세계의 변화환경과 직업정보획득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직업선택은 자신의 적성,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의사결정은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검사의 특징은 첫째, 개인의 진로방향 예측 목적이 아닌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진로선택의 태도와 능력의 상대적 위치를 진단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둘째, 개인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이고,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선택에 관한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모두 측정하는 검사이다.

(4) 진로성숙태도 검사³⁷⁾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이기학(1997)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검사 문항은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검사 척도는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이라는 5개의 진로태도 구인을 반영한다. 설정된 구인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요인으로 각 차원이 높을수록 성숙되어 있음을 뜻한다.

37) 이희영(2006), 전게서, pp.116-118. 요약정리.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더 관련이 많은지를 측정한다.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한다.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을 측정한다.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진로성숙 측정도구의 개발자, 대상, 구성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표 III-1> 진로성숙 측정도구의 요약³⁸⁾

측정도구명	개발자	대상	구성(하위영역 및 문항수)
진로발달검사 (CDI)	Donald Super	중2~고3 대학생	1부(진로성향): 진로계획(20), 진로탐색(20), 의사결정(20),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20)
진로성숙검사 (CMI)	John Crites	초6~고3	태도척도 선발용(50) 상답용(75) : 결정성(15), 참여도(15), 독립성(15), 성향(15), 타협성(15) 능력검사 : 자기평가(20), 직업정보(20), 목표선정(20), 계획(20), 문제해결(20)
진로성숙검사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중·고등 학생	태도검사: 계획성(13), 독립성(13), 결정성(10) 능력검사: 직업세계의 이해(30), 직업선택(15), 의사결정(15)
진로성숙 태도검사	이기학	고등 학생	결정성(10), 목적성(8), 확신성(10), 준비성(10), 독립성(9)

38) 이희영(2006), 전게서, p.118.

3) 진로태도성숙 검사 선정 이유

이상의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신뢰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성숙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태도 검사이다. 이 측정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도 측면에서 볼 때,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우리나라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측정도구이며 현실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리테스(Crites)가 개발한 CMI는 진로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진로 발달 과정의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로 선택에서 상황적·문화적인 측면을 간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³⁹⁾ 반면에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CMI를 참고하여 제작된 문화적인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문화적인 도구이다. 또한 검사척도는 우리나라 학생이 실제로 직면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진로성숙태도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문제를 연구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객관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객관적으로 점수화되는 검사도구이다.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친 예비 조사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실용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다른 측정도구에 비해 구성이 간략하여 검사 실시에 용이하다. 슈퍼(Super)에 의해 개발된

39) 이기학(1999), 진로 태도 측정 도구의 문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진로교육학회, p.215, 재인용.

CDI는 검사문항이 긴 문장으로 되어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⁴⁰⁾ 또한 번역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다. 지나치게 문항 수가 많거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검사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학생들의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에 맞게 개발된 진로성숙태도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넷째, 신뢰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대체로 바람직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이기학(1997)의 진로성숙태도 검사는 진로성숙 수준과 진로성숙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진로성숙태도 검사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진로성숙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진로성숙태도 검사 사용한 선행연구

	손인철 (2017) ⁴¹⁾	최소라 (2016) ⁴²⁾	양희나 (2014) ⁴³⁾	진준혁 (2010) ⁴⁴⁾	차미탁 (2010) ⁴⁵⁾
결정성	.90	.71	.82	.61	.92
목적성	.87	.86	.67	.85	.80
확신성	.80	.83	.81	.79	.69
준비성	.85	.78	.73	.84	.66
독립성	.81	.85	.68	.70	.75

40) 임연 외2(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3, 재인용.

41) 손인철(2015), 청소년활동역량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42) 최소라(2016),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43) 양희나(2014),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44) 진준혁(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45) 차미탁(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결정성은 .61~.90, 목적성은 .67~.87, 확산성은 .69~.80, 준비성은 .66~.85, 독립성은 .68~.85 으로 연구문제와 대상에 따라 신뢰도 수치가 다르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내적일관성을 나타냈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교육통계연보(2016)⁴⁶⁾에 따르면 2016년도에 예체능계열 순수미술전공 재학생수는 총 11,260명으로 여성이 9,3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미술대학 순수미술전공자의 90%는 여학생이며 남학생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S여자대학 내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미술대학 내에서도 순수예술 전공인 동양화, 서양화, 조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16년 12월 5일 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 배부, 340부 회수되어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총 327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Ⅲ-3)

<표Ⅲ-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
학년	1학년	82	25.1
	2학년	80	24.5
	3학년	86	26.3
	4학년	79	24.2

46)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6), 교육통계자료, <http://kess.chedi.re.kr/stats/school?menuCd>.

전공	동양화	105	32.1
	서양화	124	37.9
	조소	98	3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쳐 약 8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계획, 실행, 분석, 정리의 4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Ⅲ-4)

<표Ⅲ-4> 연구절차

단계	연구절차	연구내용
1단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문제 설정 · 선행연구 조사 ·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절차 수립 · 연구도구(설문지) 준비 · 연구대상 섭외
2단계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3단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 통계처리 · 연구결과 분석
4단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해석 및 정리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도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표Ⅲ-5) 최종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Ⅲ-5> 설문지 구성내용

구분	하위영역	문항 수	합계
일반적 특성	학년	1	2
	전공	1	
진로성숙도	결정성	8	40
	목적성	8	
	확신성	8	
	준비성	8	
	독립성	8	
전체			42

설문지의 문항 수는 전체 4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2문항, 진로성숙도 40문항으로 총 42문항이다.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에 대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배경적 변인으로 학년과 전공으로 분류하였다.

(2)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 측정도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설문지

를 활용하였다. 진로성숙검사는 5개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확신 정도,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설정 정도,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 준비 정도,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진로성숙도 설문문항은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지의 문항 수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각 영역을 8문항으로 정리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수를 조정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애매한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40문항 중에 22문항은 역채점을 필요로 하며 구분하여 역산 처리하였다.

신뢰도의 계수는 0에서 1까지 숫자로 산출되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신뢰도가 0.8~0.9 사이 값이라면 상당히 내적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0.7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0.6이상이면 수용할 정도 수준이고, 0.6 이하이면 전체 항목과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으로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Cronbach's α 는 <표Ⅲ-6>와 같다.

<표Ⅲ-6> 진로성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결정성	1, 2, 3, *4, *5, *6, *7, *8	8	.912
목적성	*9, *10, *11, *12, *13, *14, *15, *16	8	.772
확신성	17, 18, 19, 20, *21, *22, *23, *24	8	.842
준비성	25, 26, 27, 28, 29, 30, 31, 32	8	.774
독립성	33, 34, 35, *36, *37, *38, *39, *40	8	.811
전체		40	

*역채점 문항

분석결과, 진로성숙도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은 .811~.912의 분포로 상당히 높은 일관성을 보이고, 준비성과 목적성은 .772~.774의 분포로 양호한 일관성을 보인다.

4) 자료분석방법

진로성숙도 검사를 비롯한 모든 지능검사는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접근 방법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기준에 입각하여 수리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통계학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22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으로 신뢰도의 값을 알아보았다. 일원분산분석으로 차이검증을 하고, 상관분석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변수들의 연관성을 산출하였다. 유의수준은 일원분산분석($p < 0.05$, $p < 0.01$), 상관분석($p < 0.01$)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문항들의 신뢰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신뢰도의 값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인 학년과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토대로 전체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결과를 파악하고, 학년별·전공별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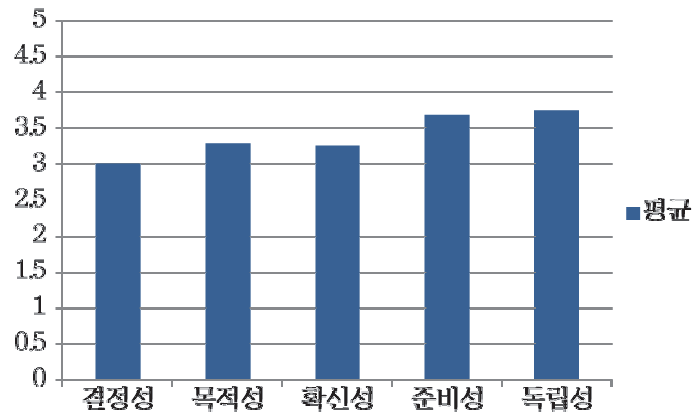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1~4학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은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값이 증가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IV-1)

<표IV-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기술적 통계

하위요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결정성	327	1.25	5.00	3.00	.81
목적성	327	2.00	5.00	3.30	.56
확신성	327	1.13	5.00	3.25	.57
준비성	327	2.00	5.00	3.69	.53
독립성	327	1.38	5.00	3.74	.58
진로성숙도	327	2.38	5.00	3.40	.40
유효한 N(목록별)	327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은

3.30~3.74이며, 구체적으로 독립성(M=3.74), 준비성(M=3.69), 목적성(M=3.30), 확신성(M=3.25), 결정성(M=3.00)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림 IV-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통계그래프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 진로정보 수집 능력, 직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비교적 뛰어나지만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나타낸다.

2.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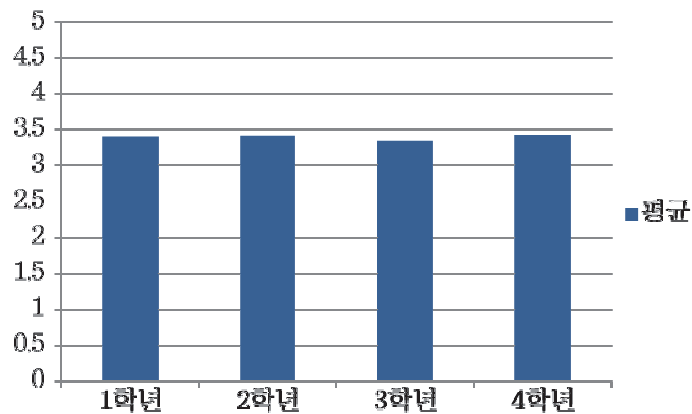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를 보면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 평균은 3.40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35~3.42 사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학년(M=3.40), 2학년(M=3.41), 3학년(M=3.35), 4학년(M=3.42)으로 나타났다.

<표IV-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1	82	3.40	.35	.461	.71	N/A
2	80	3.41	.40			
3	86	3.35	.38			
4	79	3.42	.45			
총계	327	3.40	.40			

*p<0.05, **p<0.01

분석결과, 진로성숙도는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았다. 1~4학년 사이의 진로성숙도가 수치상으로는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46, P-value=0.71).



<그림IV-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그래프

즉,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진로성숙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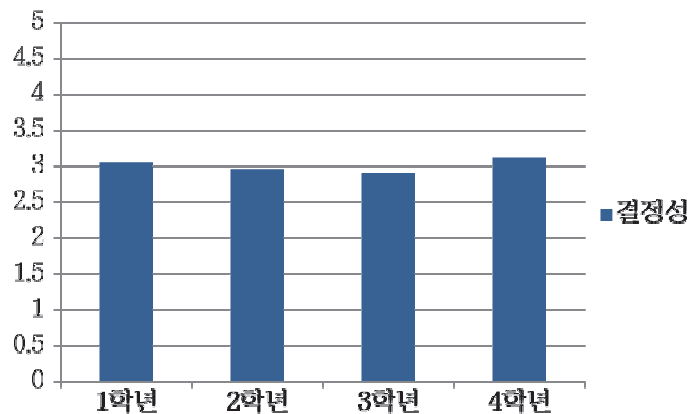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성의 차이는 <표IV-3>과 같다. 전체 학년 결정성의 평균은 3.00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2.89~3.12 이다. 구체적으로 결정성은 1학년(M=3.05), 2학년(M=2.96), 3학년(M=2.89), 4학년(M=3.12) 으 로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3>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학년	1학년	82	3.05	.76	1.201	.309	N/A
	2학년	80	2.96	.79			
	3학년	86	2.89	.81			
	4학년	79	3.12	.88			
	총계	327	3.00	.81			

*p<0.05, **p<0.01

각 학년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F=0.12, P-value=0.30)



<그림IV-3>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 그래프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성숙 5가지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에서 결정성 역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2)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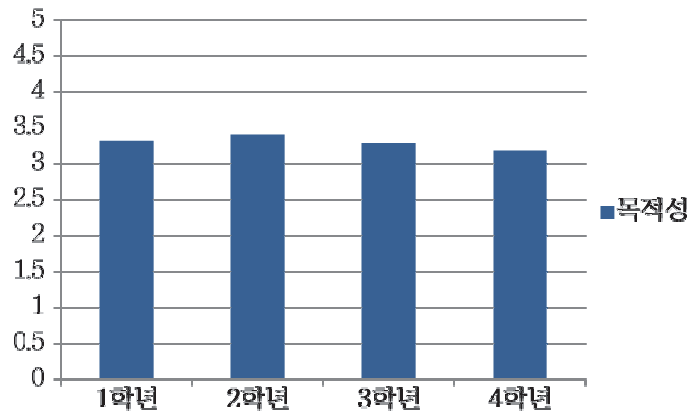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 목적성의 차이는 <표IV-4>과 같다. 전체 학년 목적성의 평균은 3.30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18~3.40 이다. 구체적으로 목적성은 1학년(M=3.32), 2학년(M=3.40), 3학년(M=3.29), 4학년(M=3.18) 으로 2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4>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학년	1학년	82	3.32	.55	2.273	.080	N/A
	2학년	80	3.40	.54			
	3학년	86	3.29	.57			
	4학년	79	3.18	.55			
	총계	327	3.30	.56			

*p<0.05, **p<0.01

각 학년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목적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F=0.70, P-value=0.08)



<그림IV-4>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 그래프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관련이 많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진로성숙 하위요인 중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였으며,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체 진로성숙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바의 명확성이 다른 능력에 비해 비교적 부족함을 뜻한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에서 목적성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3)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확신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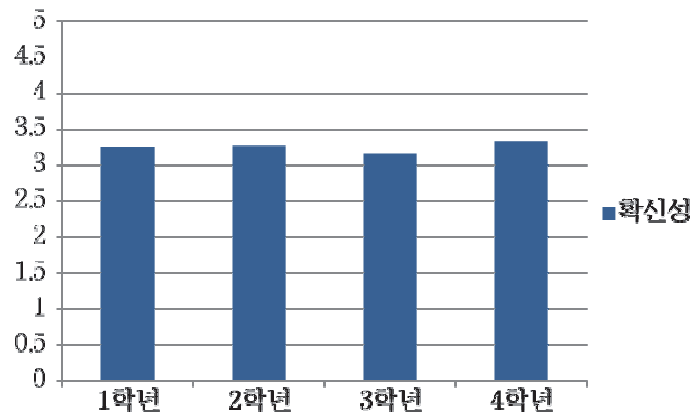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확신성의 차이는 <표IV-5>과 같다. 전체 학년 확신성의 평균은 3.25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15~3.33 이다. 구체적으로 확신성은 1학년(M=3.26), 2학년(M=3.27), 3학년(M=3.15), 4학년(M=3.33) 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5> 학년에 따른 확신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학년	1학년	82	3.26	.54	1.445	.230	N/A
	2학년	80	3.27	.59			
	3학년	86	3.15	.47			
	4학년	79	3.33	.69			
	총계	327	3.25	.57			

*p<0.05, **p<0.01

각 학년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확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F=0.14, P-value=0.23)



<그림 IV-5> 학년에 따른 확신성 차이 그래프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진로성숙의 5가지 하위요인 중 결정정보다는 높고, 목적정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른 능력에 비

해 부족함을 뜻한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에서 결정성, 목적성과 함께 확신성 영역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4)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준비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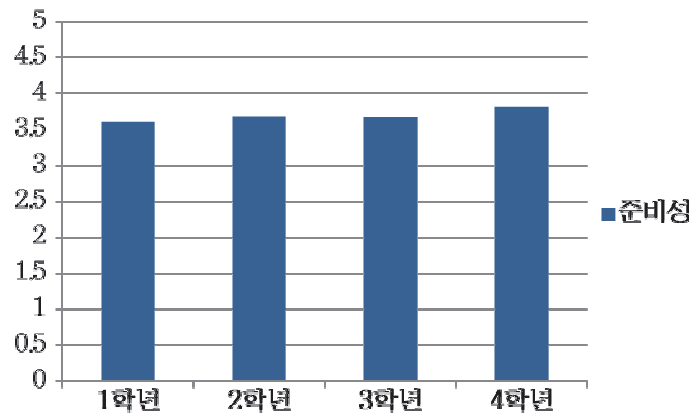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준비성의 차이는 <표IV-6>과 같다. 전체 학년 준비성의 평균은 3.69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60~3.82 이다. 구체적으로 준비성은 1학년(M=3.60), 2학년(M=3.68), 3학년(M=3.67), 4학년(M=3.82) 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6> 학년에 따른 준비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학년	1학년	82	3.60	.54	2.259	.081	N/A
	2학년	80	3.68	.49			
	3학년	86	3.67	.56			
	4학년	79	3.82	.53			
	총계	327	3.69	.53			

*p<0.05, **p<0.01

각 학년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준비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F=0.225, P-value=0.08)



<그림IV-6> 학년에 따른 준비성 차이 그래프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 진로에 대한 준비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진로성숙 5가지 하위영역 중 목적성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체 진로성숙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뛰어남을 나타낸다.

5)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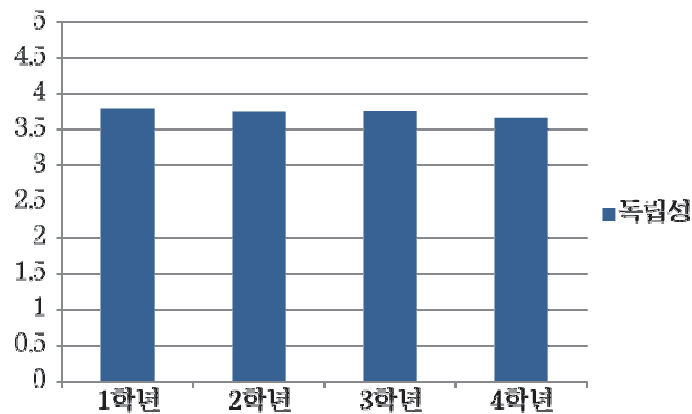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독립성의 차이는 <표IV-7>과 같다. 전체 학년 독립성의 평균은 3.74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66~3.78 이다. 독립성은 1학년(M=3.78), 2학년(M=3.75), 3학년(M=3.76), 4학년(M=3.66) 으로 1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7>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학년	1학년	82	3.78	.53	.719	.541	N/A
	2학년	80	3.75	.59			
	3학년	86	3.76	.59			
	4학년	79	3.66	.61			
	총계	327	3.74	.58			

*p<0.05, **p<0.01

각 학년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독립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F=0.71, P-value=0.54)



<그림 IV-7>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 그래프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성숙의 5가지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뛰어남을 뜻한다.

3.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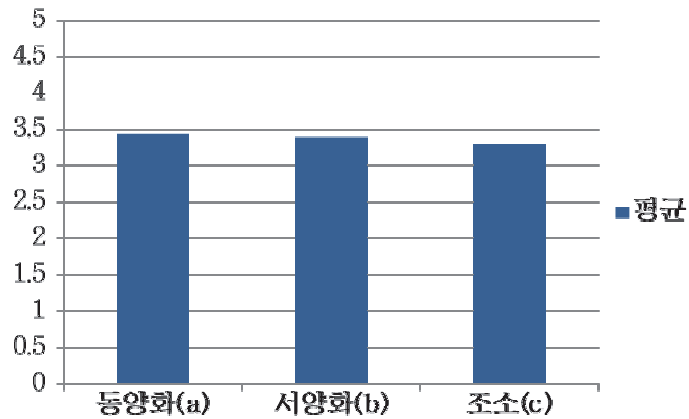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8>과 같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 평균은 3.40 이며, 각 학년의 평균값은 3.29~3.44 사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양화(M=3.44), 서양화(M=3.44), 조소(M=3.29) 으로 나타났다.

<표IV-8>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동양화(a)	105	3.44	.40	4.703	.010*	a.b>c
서양화(b)	124	3.44	.37			
조소(c)	98	3.29	.40			
총계	327	3.40	.40			

*p<0.05, **p<0.01

분석결과,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동양화와 서양화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조소는 두 전공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F=04.70, p-value=0.01) 즉,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모두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림 IV-8>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그래프

이에 따라 Sheffe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동양화와 서양화는 조소와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동양화와 서양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결정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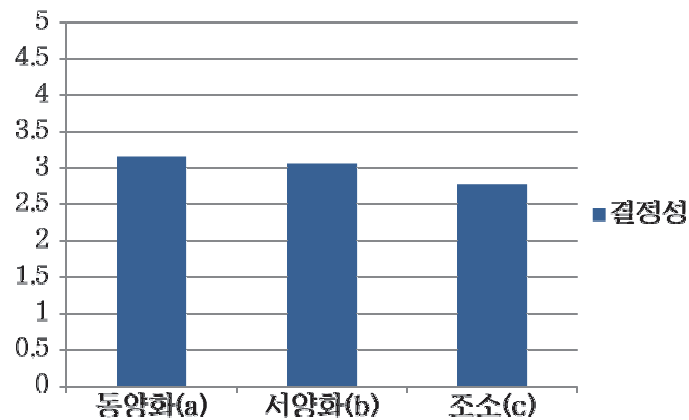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결정성의 차이는 <표 IV-9>과 같다. 전체 전공의 결정성 평균은 3.00 이며, 각 전공의 평균값은 2.77~3.15 이다. 결정성은 동양화(M=3.15), 서양화(M=3.06), 조소(M=2.77) 으로 동양화가 가장 높고, 조소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9> 전공에 따른 결정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전공	동양화(a)	105	3.15	.796	5.995	.003**	a.b>c
	서양화(b)	124	3.06	.795.			
	조소(c)	98	2.77	.828			
	총계	327	3.00	.817			

*p<0.05, **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결정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05.99, p-value=0.003).



<그림IV-9> 전공에 따른 결정성 차이 그래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화와 서양화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양화와 조소, 서양화와 조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화와 조소는 평균 0.37 차이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다.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양화와 서양화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조소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조소 전공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 능력이 동양화, 서양화 전공 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2)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목적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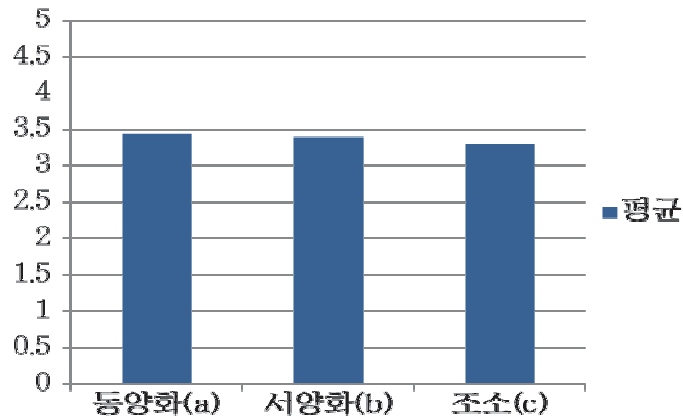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목적성의 차이는 <표IV-10>과 같다. 전체 전공의 목적성평균은 3.3 이며, 각 전공의 평균값은 3.14~3.41 이다. 목적성은 동양화(M=3.32), 서양화(M=3.41), 조소(M=3.14) 으로 서양화가 가장 높고, 조소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10> 전공에 따른 목적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전공	동양화(a)	105	3.32	.54	6.651	.001**	a.b>c
	서양화(b)	124	3.41	.53			
	조소(c)	98	3.14	.57			
	총계	327	3.30	.56			

*p<0.05, **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목적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F=06.65, p=0.001).



<그림IV-10> 전공에 따른 목적성 차이 그래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화와 서양화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양화와 조소, 서양화와 조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양화와 조소는 평균 0.27 차이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다.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관련이 많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동양화와 서양화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조소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조소 전공 학생들은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바의 명확성이 동양화, 서양화 전공 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3)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확신성 차이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확신성의 차이는 <표IV-11>과 같다. 전체 전공의 확신성평균은 3.25 이며, 각 전공의 평균값은 3.11~3.34 이다. 확신성은 동양화(M=3.34), 서양화(M=3.28), 조소(M=3.11) 으로 동양화가 가장 높고, 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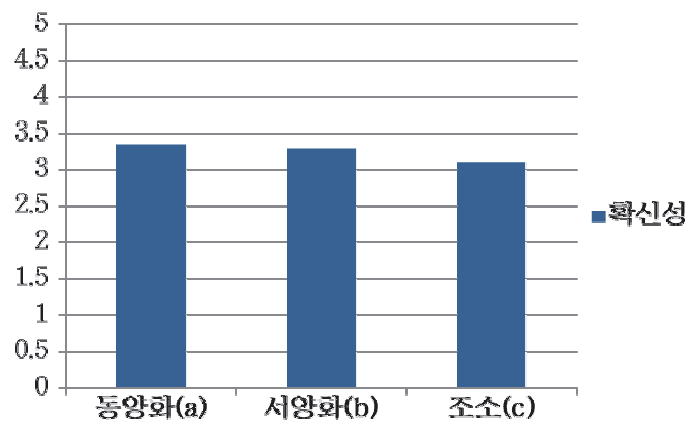
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11> 전공에 따른 확신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전공	동양화	105	3.34	.50	4.356	.014*	a.b>c
	서양화	124	3.28	.56			
	조소	98	3.11	.63			
	총계	327	3.25	.57			

*p<0.05, **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확신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F=04.35, p-value=0.01).



<그림IV-11> 전공에 따른 확신성 차이 그래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화와 서양화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양화와 조소, 서양화와 조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양화와 조소는 평균 0.23 차이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다.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동양화와 서양화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조소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조소 전공 학생들은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동양화, 서양화 전공 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4)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준비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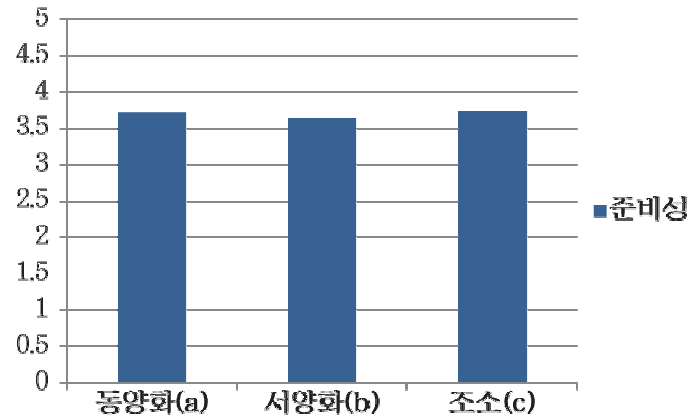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확신성의 차이는 <표IV-12>과 같다. 전체 전공의 준비성 평균은 3.69 이며, 각 전공의 평균값은 3.64~3.73 이다. 확신성은 동양화(M=3.34), 서양화(M=3.28), 조소(M=3.11) 으로 동양화가 가장 높고, 조소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IV-12> 전공에 따른 준비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전공	동양화	105	3.71	.52	.957	.385	N/A
	서양화	124	3.64	.55			
	조소	98	3.73	.53			
	총계	327	3.69	.53			

*p<0.05, **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동양화, 서양화, 조소 전공 사이의 준비성은 수치상으로는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95, p-value=0.38). 즉,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준비성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2> 전공에 따른 준비성 차이 그래프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 진로에 대한 준비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동양화와 조소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서양화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동양화와 조소는 진로성숙도 5가지 하위영역 중 준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동양화와 조소 전공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뛰어나고, 서양화 전공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도가 동양화, 조소 전공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5)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독립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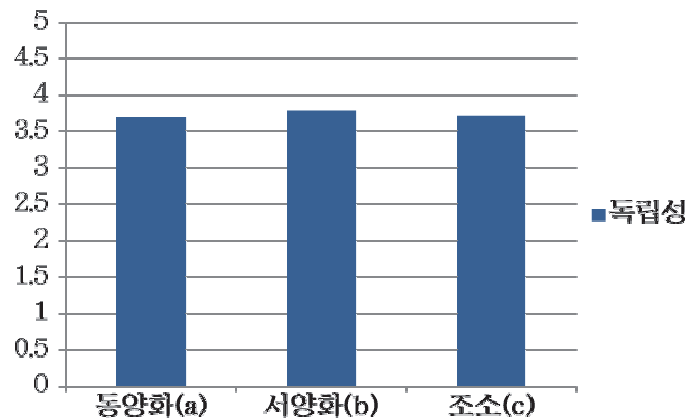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독립성의 차이는 <표 IV-13>과 같다. 전체 전공 독립성의 평균은 3.74 이며, 각 전공의 평균값은 3.70~3.738 이다. 독립성은 동양화(M=3.70), 서양화(M=3.78), 조소(M=3.72) 으로 동양화가 가장 높고, 조소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13> 전공에 따른 독립성 차이

변수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검증
전공	동양화	105	3.70	.50	.655	.520	N/A
	서양화	124	3.78	.63			
	조소	98	3.72	.60			
	총계	327	3.74	.58			

*p<0.05, **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동양화, 서양화, 조소 전공 사이의 독립성은 수치상으로는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65, p-value=0.52). 즉,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독립성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3> 전공에 따른 독립성 차이 그래프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양화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동양화와 조소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서양화는 진로성숙의 5가지 하위요인 중 독립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서양화전공 학생들은 진로의 주체적인 선택 능

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뛰어나고, 동양화, 조소 전공 학생들은 진로의 주체적인 선택 능력이 서양화 전공 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뜻한다.

4.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상관관계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는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한 변인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 변인의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도는 상관계수(r)로 계산하고, 상관계수는 +1.00에서 -1.00까지의 수치를 취한다. 정(+)일 경우에는 두 변인이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관계이고, 부(-)인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증감하는 관계이며, .00은 상관이 없음을 나타낸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에 정(+)과 부(-)의 관계는 <표IV-1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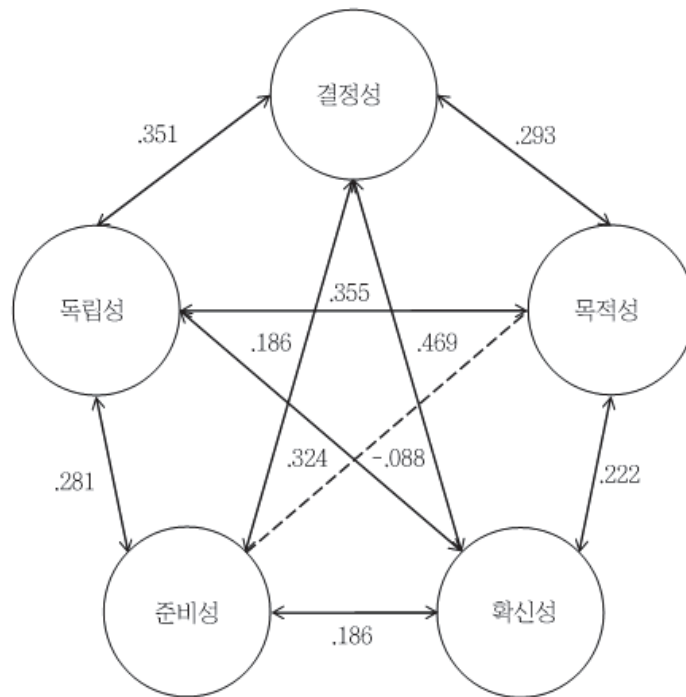
<표IV-1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성숙도
결정성	Pearson 상관계수 1	.293**	.469**	.186**	.351**	.786**
성	유의수준	.000	.000	.001	.000	.000
목적성	Pearson 상관계수 .293**	1				
성	유의수준	.000				
확신성	Pearson 상관계수 .469**	.222**	1			
성	유의수준	.000	.000			
준비성	Pearson 상관계수 .186**	-.088	.168**	1		
성	유의수준	.001	.112	.002		

독 립 성	Pearson 상관계수	.351**	.355**	.324**	.281**	1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진 로 성 숙 도	Pearson 상관계수	.786**	.557**	.661**	.449**	.710**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00

**p<0.01

분석결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준비성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목적성이 높으면 준비성이 낮고, 목적성이 낮으면 준비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IV-1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가장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결정성과 확신성이다($r=0.46$, $p<0.01$). 이는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결정성의 상관관계는 확신성(0.469), 독립성(0.351), 목적성(0.293), 준비성(0.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결정성 수준이 높으면, 다른 요인 또한 높다는 것을 말한다. 확신성은 결정성(0.469), 독립성(0.324), 목적성(0.222), 준비성(0.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성은 목적성(0.355), 결정성(0.351), 확신성(0.324), 준비성(0.281)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목적성은 독립성(0.355), 결정성(0.293), 확신성(0.222), 준비성은 독립성(0.281), 결정성(0.186), 확신성(0.168)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목적성과 준비성(-0.08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08$, $p=0.11$).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선택의 목적성과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준비성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IV. 종합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타 전공영역에 비해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상태를 나타낸 자료가 적음을 인식하고,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1~4학년 학생들의 학년,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현재 진로준비 및 상태를 파악하고,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성신여자대학 내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로 1학년 82명(25.1%), 2학년 80명(24.5%), 3학년 86명(26.3%), 4학년 79명(24.2%)이며, 전공별로 동양화 105명(32.1%), 서양화 124명(37.2%), 조소 98명(30.0%)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3.40으로 독립성(M=3.74), 준비성(M=3.69), 목적성(M=3.30), 확신성(M=3.25), 결정성(M=3.00)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 확신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와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소신대로 진로를 결정하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진로에 대한 믿음, 구체적인 진로 및 방향 설정 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보인다. 이는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독립적인 진로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청년실업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확신성과 결정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전공분야의 학교 선배와의 멘토링, 관련 분야에 취업한 선배와의 만남, 리더십 교육, 단기 현장학습 등 미술전공 대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및 서비스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기대와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력개발센터를 비롯한 지도교수와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세종)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센터 상담을 받는 것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고, 미리 상담희망분야를 조사하여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참고하여 학과에서는 미술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필수로 진로상담을 받게 하여 저학년부터 전공분야와 밀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관련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여 원하는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과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설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M=3.40), 2학년(M=3.41), 3학년(M=3.35), 4학년(M=3.42)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3학년과 4학년의 진로성숙도가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학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준비 수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학년에 맞는 진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바이다.

각 학년별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준비성은 1학년(M=3.60), 2학년(M=3.68), 3학년(M=3.67), 4학년(M=3.82) 으로 비교적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준비가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독립성은 1학년(M=3.78), 2학년(M=3.75), 3학년(M=3.76), 4학년(M=3.66) 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년일수록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학년일 때 막연하게 생각하던 진로선택 및 방향이 취업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혼란과 난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 및 학과 내에 학년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프로그램이 확립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진로인식, 2학년은 진로탐색, 3학년은 진로체험, 4학년은 진로선택으로 단계별 진로상담과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진로인식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가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직업적성검사와 직업흥미검사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진로탐색은 학생의 가치관과 흥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취업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진로체험은 미술전공과 관련된 진로박람회, 인턴쉽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체험·탐방할 수 있게 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진로선택은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관련 진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력서나 면접, 포트폴리오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셋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 수준은 동양화(M=3.44), 서양화

(M=3.44), 조소(M=3.29) 으로 동양화와 서양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동양화와 조소, 서양화와 조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조소는 진로성숙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부분에서 동양화, 서양화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준비성과 독립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소의 경우 동양화와 서양화에 비해 진로 선택 및 계획의 정도, 직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도,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는 조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동양화, 서양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계획을 세우고 역량을 쌓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다른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전공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고, 진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동양화, 서양화, 조소는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을 제작할 때, 다른 제작방식을 보인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공통적으로 붓과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지만, 조소는 점토나 돌 등의 재료를 빚거나 깎아서 형상을 만든다. 따라서 동양화, 서양화, 조소는 각각 전공에 따라 관련 진로 분야가 다르고, 진로에 대한 방향과 접근방법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 중 조소의 비율이 동양화, 서양화에 비해 적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술대학 학과 내에서 각 전공의 특성에 맞는 진로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희대에서는 ‘취업스쿨’을 통해 총 30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전공별로 진로관련 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이를 확장하여 미술대학만의 취업 세미나와 진로 탐색을 돕는 진로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미술전공 학생들만의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공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위해서

미술 단과대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책임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에 고립되지 않고 타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진로 및 취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목적성과 준비성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정성과 확신성, 독립성과 목적성은 서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목적성과 준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은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목적성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목적성과 준비성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내 경력개발센터 및 단과대 상담실에서는 목적성, 준비성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와 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진로성숙도 5가지 하위요인을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목적성은 진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려는 경향이고,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경향으로 대학은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대학은 각각의 직업군의 근무형태, 임금, 노동시간, 지위,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을 파악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진로인식 등 진로상태를 나타낸 자료가 타 전공에 비해 미비하다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1~4학년 학생들의 학년,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조사를 통해 현재 진로준비 및 상태를 파악하고,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의 여러 학자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진로성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선택 및 준비의 정도와 동일한 발달단계 사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성숙 수준을 이해하고 동일한 연령층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성신여자대학 내 미술대학 재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순수예술전공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 배부, 340부 회수되어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총 327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학년별로 1학년 82명(25.1%), 2학년 80명(24.5%), 3학년 86명(26.3%), 4학년 79명(24.2%)이며, 전공별로 동양화 105명(32.1%), 서양화 124명(37.2%), 조소 98명(30.0%)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성숙검사는 5개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772~.912 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으로 신뢰도의 값을 알아보았다. 일원분산분석으로 학년과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검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립성, 준비성, 목적성, 확신성, 결정성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진로 결정 수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가 뛰어남을 뜻한다. 또한 진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비교적 명확하나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 구체적인 진로 및 방향 설정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미흡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결정성과 확신성 영역을 향상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수치상으로 1학년(M=3.40), 2학년(M=3.41), 3학년(M=3.35), 4학년(M=3.42)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학년의 필요와 요구에 관계없이 진로교육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진로성숙 하위요인 중 준비성은 1학년(M=3.60), 2학년(M=3.68), 3학년(M=3.67), 4학년(M=3.82) 으로 비교적 학년에 따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독립성은 1학년(M=3.78), 2학년

(M=3.75), 3학년(M=3.76), 4학년(M=3.66) 으로 비교적 저학년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년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프로그램이 확립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알아보았다. 동양화(M=3.44), 서양화(M=3.44), 조소(M=3.29) 으로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동양화와 서양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동양화와 조소, 서양화와 조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소는 진로성숙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부분에서 동양화, 서양화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준비성과 독립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조소는 동양화와 서양화에 비해 진로 선택 및 계획의 정도, 직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도,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공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고, 진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술대학 학과 내에서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준비성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상관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정성과 확신성, 독립성과 목적성은 서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목적성과 준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 내 진로개발과 관련된 센터는 목적성, 준비성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와 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요인을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만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시되어야 하는 점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결정성과 확신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부족함을 보였다. 따라서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결정성과 확신성 영역을 향상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결정성과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입생은 필수로 경력개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관련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과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체계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술전공 학생만을 위한 선배와의 멘토링, 단기 현장학습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년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학년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가치를 파악하여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진로인식단계, 2학년은 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취업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진로탐색단계, 3학년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박람회, 인턴쉽 등 정보 제공과 체험·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단계, 4학년은 진로를 선택하고, 이력서나 면접, 포트폴리오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선택단계로 학년별 진로상담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미술대학 학과 내에서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연구결과, 동양화, 서양화전공에 비해 조소전공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영역이 부족함을 보였다. 따라서 조소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 믿음과 확신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술대학만의 취업 세미나와 진로교과목을 개설하여 미술전공 학생들만의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미술 단과대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책임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에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전공과 연계하여 확장된 시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넷째,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각 전공의 진로성숙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을 포함한 모든 진로성숙 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체계적인 지도와 조언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변인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기에 미술대학 학생들의 개인·가족,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성신여자대학 미술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확보하여 진로성숙 검사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미술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대학 순수예술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밝힘으로써 미술대학을 위한 맞춤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때보다 진로교육의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 학생들의 진로수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진로교육 질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재태(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한국직업전망, 진한엠앤비
김충기(1981), 생애교육, 서울:시공사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배영사
김충기(1992), 산업사회와 진로교육, 서울:교육과학사
김충기(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진로교육학회
김충기, 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대영출판사
김충기 외5(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박선영 외3(2014), 진로상담과 직업, 경기:정민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이현림 외3(2000), 진로지도와 상담, 경북:영남대학교 출판부
이현림(2007), 진로상담, 서울: 양서원
이희영(2006),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학지사
임경희 외11(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학지사
임상빈 외5(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미술학, 서울: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 한국직업사전, 서울: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3 직종별 직업사전, 서울:한국고용정보원

<학술지>

- 민춘기(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운영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3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손인철(2015), 청소년활동역량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교육연구 23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이현주(2001),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 : 대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이기학(1999), 진로 태도 측정 도구의 문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진로교육학회

정철영(2010), 진로교육의 이해, 교육연구정보. 통권 제58호(2010.10),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학위논문>

양희나(2014),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준혁(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미탁(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소라(2016),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자료>

김정희(2015), 대학생 진로교육 실태 모니터링,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한국교육대학협의회

임연 외2(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개정연구, 서울:한국

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6), 대학통계, <http://kess.kedi.re.kr/>

<서양서 단행본>

Bailey, Larry J, & Stadt. (1973). Ronald, *Career Education: New Approch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II.: Mcnight Publishing Co.

ABSTRACT

Career Maturity of Art students Majoring in Western Painting, Oriental Painting, and Sculpture -Focusing on female college students

Hong, sewoo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rade and majors of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art college, that data indicating the status of career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recognition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majors. It aims to understand the career preparation and condition of students of Fine Art and to provide data that can help to develop a customized career program for art college.

Career maturity refers to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self and career world, career preparation, planning, choice, and practice according to age and stage of development, and indicates the relative position among the same age group. Career maturity has a diagnostic characteristic that reveals the current status and a prescriptive personality that can guide students through their current statu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development, and maturity of their career. That is, it is useful for students or schools in that they diagnoses the attitudes and abilities of the students about career choice and provides a basis for judging which area needs guidance and advice according to the diagnosis resul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I conducted a career maturity

survey on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rt at four-year Sungshin Women's College in Seoul.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wo areas of general nature and career maturity to identify research problems in order to identify research problems. The career maturity measurement tool used was the career maturity attitude test (47 questions) developed by Lee(1997), which means that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career maturity lev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e career maturity level of students of fine art major of art college showed high value as independence, readiness, objectivity, certainty and order of decision. The figures showed similar levels of independence and preparedness, with the same level of objectivity, certainty, and determin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grade of art college majors. However,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 of the post - test, it was showed that the sculpture was lower than Oriental painting and Western painting in determinism, purpose and certainty an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paredness and independence.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maturity sub-factors based on the career maturity of students of fine arts majoring in art colleg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ism, objectivity, certainty, readiness, and independence are all increasing or decreasing in the same direction except for purpose and preparedness.

Based on such stud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rete career program for the grade of art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of students of fine arts in art college. Secondly, This suggests that career education that meet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rt college should be done. At the moment when interest and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increased, understanding of students' career levels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er education in the future and help develop customized career program for art colleges.

부 록

설문지

미술대학 순수예술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사를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미술대학 순수예술 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미술대학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본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질문 내용에 따라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문항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홍서우

E-mail: sewooh91@naver.com

▶다음은 설문에 필요한 개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2. 전공

①동양화 ②서양화 ③조소

설문은 뒷장에 이어집니다.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의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2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3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서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4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5	진로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	2	3	4	5
6	미래의 나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1	2	3	4	5
7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8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	1	2	3	4	5
9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10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의 기회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1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2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3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4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5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 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6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1	2	3	4	5
17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18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19	내가 원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 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20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21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23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24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25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보곤 한다.	1	2	3	4	5
2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1	2	3	4	5
27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8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1	2	3	4	5
29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길 원한다.	1	2	3	4	5
30	자신의 흥미나 성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1	2	3	4	5
31	미래의 유망직종에 대해 관심이 많다.	1	2	3	4	5
32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33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34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내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35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36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37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38	부모님이 반대하는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1	2	3	4	5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